

2022년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설을 맞이하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고백	다	같	이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다			
	2. 주 안에 감추인 새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았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찬 송	3.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다	같	이
	4.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후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대표기도	가	족	중

성경봉독 요한복음 5:10-15

인 도 자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말씀 나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인 도 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8년 동안 고생하던 환자를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의 오랜 문제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의 아픔과 문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가족의 오랜 문제를 해결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질문한 말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운명처럼 여기면서 더 좋아지거나 해결되기를 기대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누군가가 나를 가장 먼저 넣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동안 지내온 환자처럼 말입니다.

2022년, 간절하게 낫고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문제의 해결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2022년도를 더욱 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결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미리 감사하며 예배로 가득 채우는 2022년을 살아갑시다. 현재의 모습에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매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새로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다짐합시다.

올 한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기도 다 같 이

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기도를 합니다.

② 가족들의 개인적 제목과 가족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다 같 이